

# 설욕의 기회 왔다... '도쿄대첩' 재현한다



16일 오후 대만 타이중 인터콘티넨탈 구장에서 열린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회 8강전 대한민국과 쿠바의 경기에서 7-2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를 마친 대한민국 선수들이 마운드 위에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리미어 12

수명의 한·일전, 한국에게 설욕의 기회가 왔다.

장소는 일본 야구의 심장, 도쿄돔이다. 한국은 16일 대만 타이중 인터콘티넨탈 구장에서 열린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 8강전에서 쿠바를 7-2로 제압하고 4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비슷한 시각, 일본도 타오위안구장에서 푸에르토리코를 9-3으로 완파하며 예선 5경기 포함 6연승의 신바람을 내며 준결승에 올랐다. 양팀은 19일 오후 7시 도쿄돔에서 준결승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 8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돔에서 열린 일본과 B조 개막전에서 0-5로 무릎 꿇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조별 예선 첫 경기라, 패배의 아픔이 크지 않았다. 한국은 예선에서 3승(2패)을 거두며 조 3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무패 행진의 일본이 부러웠지만, 설욕할 기회만 기다렸다. 그리고 기회가 왔다.

## 김민식호, 쿠바에 7-2 승...내일 일본과 4강전

### 예선 거쳐 예열 마친 방망이 "기다려 오타니"

8일 한국 타선을 상대로 6이닝 동안 2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약관의 에이스 오타니 쇼헤이(21·닛폰햄 파이터스)가 준결승에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두렵긴 하지만,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예선 조별리그와 8강전을 통해 예열한 배트로 오타니와 맞선다. 오타니가 틈을 보이면 집중타를 쏟아내겠다는 각오다.

오타니가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좋은 타자'로 꼽은 김현수(두산 베어스)는 "오타니 공을 처음 상대한 뒤 두 번째 타석부터는 적응되는 느낌이 있었다"며 "다른 타자들도 빠른 공에 익숙해졌을 것이고, 남은 경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일본에서 오타니와 상대한 이대호(소프트뱅크 호크스)는 "남자가 두 번 당할 수는 없다"고 의욕을 키우기도 했다.

설욕을 위해선 반드시 일본 타선도 막아야 한다. 주요 경계 대상은 나카다 쇼(닛폰햄). 나카다는 이번 대회에서 23타수 10안타(타율 0.435) 2홈런 13타점을 기록했다. 스즈키 요시토모(요코하마DeNA 베이스타스)도 20타수 9안타(타율 0.450) 5타점으로 활약했다.

예선전과 8강전 팀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은 타격에서 한국을 투수력에서 빛났다. 일본은 6경기 팀 타율 0.324를 기록, 이번 대회에 나선 12개 팀 중 가장 뛰어난 화력을 과시했다. 한국은 팀 타율 0.289로 5위였다. 팀 평균자책점에서는 한국이 2.42로 캐나다(1.83)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일본은 2.83으로 3위에 자리했다.

도쿄돔은 일본 야구의 심장이다. 하지만 한국 야구의 빛나는 역사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다. 한국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예선전,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과 경기에서 3-2로 승리했다. 2009년 WBC에서는 1라운드 예선에서 일본에 2-14로 7회 콜드게임 패 수모를 당했지만, 1라운드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설욕했다. 2006년과 2009년 WBC 한국 대표팀 사령탑은 김민식(68) 감독이었다. 김민식 감독과 한국 대표팀은 11월 19일, 세 번째 도쿄대첩을 꿈꾼다. /연합뉴스

## 시즌 다 뛰었더라면... 강정호, 한국인 첫 '신인왕' 무산

### 내셔널리그 투표서 3위 시카고 브라이언트 1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한국인 최초 '올해의 신인왕'(Rookie of the Year) 수상에는 실패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7일 강정호가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 내셔널리그 신인왕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에는 시카고 컵스 3루수 크리스 브라이언트(23)가 선정됐다.

한국 야수 중 처음으로 포스팅을 거쳐 피츠버그 내야수로 입단한 강정호는 데뷔 첫해인 올 시즌 126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을 기록하며



강정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캐치볼 동영상. /연합뉴스

내셔널리그 신인왕 최종 후보 3인에 들었다. 불의의 부상으로 시즌을 다 채우지 못하고도 신인왕 후보에 이름을 올린 강정호는 투표에서 2순위 4표, 3순위 16표로 28점을 얻었다.

MLB 신인왕은 기자들이 후보 가운데 1-2-3 순위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지며 1순위는 5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1점으로 계산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브라이언트는 1순위 30표를 찍을이며 총 150점으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매트 더피로 2순위 22표, 3순위 4표로 70점을 얻었다. 아메리칸리그 신인왕 타이틀은 휴스턴 애스트로스 유격수 카를로스 코레아(21)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테임즈



박병호

## '40-40' 테임즈냐... 4년 연속 홈런왕 박병호냐

### 프로야구 MVP, 양현종·에릭 등 후보에...24일 발표

40-40의 테임즈냐? 4년 연속 홈런왕의 박병호냐? 2015시즌 프로야구를 빛낸 '별종의 별'이 24일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5일 오후 2시 서울 The-K 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MVP와 신인상을 선정하는 2015 타이어뱅크 KBO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종합 일간지, 스포츠 전문지, 방송사 간사로 구성된 후보 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 에릭 해커와 에릭 테임즈(이상 NC), 박병호(넥센), 양현종(KIA) 등 4명이 KBO MVP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구자욱(삼성), 김하성(넥센), 조무근(kt) 등 3명은 '최고의 루키'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투표는 이미 끝났다. 한국야구기자회

와 각 지역 언론사의 KBO 리그 취재 기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가 지난달 11일 실시됐으며, 그 결과는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에릭과 양현종이 팀의 에이스로 맹활약을 했지만 MVP는 기록 행진을 펼친 테임즈와 박병호의 2파전으로 점쳐진다. 신인상 부문에서도 구자욱과 김하성 두 야수의 싸움이 예상된다.

MVP와 신인상은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해야 하며, 최다 득표 선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시상식 현장에서 1·2위 선수의 결선투표가 이뤄진다. 그 중 최다 득표를 획득한 선수가 수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MVP에게는 트로피와 3700만원 상당의 기아자동차 울뉴 스폰서로 부상, 신인상

수상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KBO 정규시즌 투수·타자 각 부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타이틀 홀더와 우수 심판위원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각 부문별 타이틀 수상 선수와 우수 심판위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퓨처스 리그는 올 시즌부터 북부와 남부, 중부 3개 리그를 통합해서 시상하며 각 부문별 타이틀 수상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KBO는 축제 한마당에 400명의 야구팬을 초대한다. 입장권은 19일 오후 2시부터 KBO 홈페이지(<http://www.koreabasebal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200명(1인2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팬사회 참여와 시상식 관람 기회가 주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뭘 땀 뚫GO! 실 땀 쉬GO!

### 반환점 돈 KIA 마무리 캠프

휴;;;

'4일 훈련 1일 휴식'에도 100% 전력에 체감강도 높아 休^^

편한 사이끼리 한방 쓰며 서로 챙기고 즐겁게 운동

야기다.

편안한 휴식을 위한 배려로 눈에 띈다. 선수들은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마음 편히 이들과 룸메이트를 구성해 밤을 보내고 있다. 투수 최고참 한기주는 편안한 후배 임 기준을 룸메이트로 선택했고 '92콤비' 박준표-박동민, 한승혁-최현정, 유창식-유원선이 한방을 쓰고 있다. 프리미어 12 상비군에 다녀오느라 뒤늦게 캠프에 합류한 심동섭과 홍건희도 룸메이트를 이루고 있다. 상무에서 복귀한 김윤동은 올 시즌 대졸 신인인 김명찬과 화려한 내년을 기약하고 있고, 정용운과 이준영은 좌완 콤비로 캠프를 보내고 있다.

'내야수조'도 눈에 띈다. 야수 최고참 전현태와 최병연은 퓨처스리그에서 함께 운동을 해온 정성교, 이인행과 한방을 구성했고, 예비 홈재호도 윤완주와 내야수 콤비를 이뤘다. 고영우와 박찬호도 내야수 조로 알콩달콩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철정 출신'의 포수 백용환과 외야수 오준혁이 한 팀을 구성했고, 포수 이흥구는 외야수 전은석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합류 초반 한방을 썼던 2016 신인들은 빠른 팀 적응을 위해 선배들과 다시 룸메이트를 구성했다. 최원준-신범수는 각각 백세웅-박진두 선배의 품으로 향했고, 이진영-이승우는 각각 노수광·이정현과 프로에서의 첫 캠프를 보내고 있다.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신인들에게는 '신세계' 같은 프로 무대의 캠프다.

루키 최원준은 "처음에는 낯선 선배들이랑 새로운 곳에서 운동한다는 게 어려웠다. 처음엔 잘 모르고 적응도 안 됐는데 (백)세웅이 형이 많이 챙겨주시고 모르는 것도 잘 가르쳐주셔서 편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며 "아마추어 시절과 다르게 체계적으로 집중해서 운동을 하는 게 좋다. 또 (백)세웅과 같은 훈련 외적인 부분을 직접 다 안해도 되니까 편하고 좋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방에서 훈련을 해왔던 외야수 김호영은 17일 뒤늦게 오키나와 캠프에 이동해 올 시즌 마무리에 들어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골프 배상문 현역 입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미국 프로골퍼(PGA) 투어에서 활동한 배상문은 올해 입대 연기를 놓고 행정 소송까지 냈다가 패소한 뒤 군입대를 결정했다.

이날 강원도 춘천의 102보충대로 입소한 배상문은 "지난 시즌 중반부터 좀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다"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좋은 모습으로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PGA 투어는 배상문의 군 복무를 배려해 전역 후 1년간 출전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상문은 2017년 하반기에 PGA 투어에 복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